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공동의회 공고

일시: 2017 년 1 월 22 일(주) 예배후
장소: 세광교회 본당
안건: 예결산 승인 및 감사 선출

- 2017 세광교회 단기선교

일시: 2017 년 2 월 20 일-24 일 (월-금)
장소: 혼두라스 템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사역: 의료 및 전도, 어린이 사역

- 지난 1 월 3 일 고 신남순 권사님 장례 및 추모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유가족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빕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 년 1 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성창현 집사/시편 40:1-11
이번 주 친교: 신미라 권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조현혜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 월 8 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3 장(통 23 장)
다함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29 편

안상민 집사 찬양(Choir)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계(Rev.) 3:14-22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1.1. 주일설교 요약

하나님의 뜻을 다 (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4-27

바울은 자신이 삼년간 사역했고 사랑하는 에베소교회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장로들에게 에베소교회에서의 자신의 사역과 장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나누고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회고합니다. 우리도 그런 회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3 년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인든지”(20) 모든 기회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알고 행하려면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고루 먹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말씀 뿐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넓게만 배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21)이었고 “은혜의 복음”(24)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예배나 성경공부, 소그룹, 개인 묵상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말씀을 폭넓게 알아가고, 모든 말씀의 중심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익숙한 본문, 익숙한 신앙 행태를 벗어나 말씀과 신앙의 범위를 넓혀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경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신 29:29). 하늘은 올려다보는 것이지 높이 올라간다고 하늘을 더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 수 없는 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울도 앞으로의 에베소교회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것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주의 말씀과 은혜에 맡길 때 소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지식보더 크다는 것을, 나아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알았던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뿐만 아니라 체험하여 놀라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힘을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전심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이라도, 천하에 미물 같은 자라도 전심을 다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주십니다. 무슨 은혜나 깨달음이나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입니다. 내가 다 몰랐다고 해서 반만 힘을 기울여 믿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전하고 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받으며 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한가지에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전심을 기울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을 알아가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많이 알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알수록 높아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나 알려주신 것은 전심을 다해 전하고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